

재미·감동 담다

5월 18일부터 5일간... 예술성 대중성 '조화'

민족의 불멸의 혼이자 한국 최고의 전통공연예술인 춘향제가 7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올해로 88회째를 맞은 춘향제는 5월 18일부터 음력 초파일인 22일까지 5일간 열리며 전통문화행사, 공연·전시예술 행사, 놀이·체험행사, 부대행사 4개 분야에 25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올 춘향제는 '재·감·흥 춘향제'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전통예술공연축제'를 주제로 춘향제만의 공연구성과 색채를 갖추며, 재미와 감동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세기의 사랑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공연예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남원시민의 꿈과 열정을 담았다.



이판사판 춤판

▲공연예술축제 정체성 확립, 대표공연예술제 전통분야 1위!

춘향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2년 연속 전통분야 '전국 1위' 축제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최고의 실경무대인 완월정 수중무대를 중심으로 품격 있고 감동 있는 주제형 대형 공연을 매일 1회 선보이고 아름다운 광한투원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광한투각, 춘향사당 무대 등 전통형 무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중·소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춘향전, 명인명창들의 명품소리한마당, 해외초청공연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광한투원 곳곳에서 펼쳐진다.

또, 심야에는 달빛이 드리워진 완월정에서 달빛콘서트가 마련되어 밤늦도록 감동적인 선율의 향연을 이어간다.

▲예술감독제 도입, 원일 평창올림픽 음악감독 연출 맡아

춘향제만의 전통공연예술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전문가를 예술감독으로 영입해 예술공연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음악감독을 맡은 원일을 예술감독으로 선임해 개막공연 및 주요공연 기획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전통을 소중히 하되, 현대적 감각의 컨템포러리 음악으로 재창조하여 예술성과 함께 재미를 느끼게 하는 등 공연의 수준과 색채를 명확히 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들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축제

제88회 춘향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참여공연 및 행사를 확대 편성한다.

최근 춘향제의 가장 뜨거운 종목인 '이판사판춤'은 올해에도 더욱 집중 강화한다. 객석 규모를 확대하고 달빛 춤판 무대를 환상의 공간으로 장식하여 분위기를 띄운다. 경연을 뛰어 넘어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사랑의 춤판을 연출할 계획이다.

광한투원 안에서 펼쳐지는 '지금의 춘향시대!'는 기존 아이템을 중심으로 완성도를 강화하고, 공연예술축제와 융합되도록 수준과 예술성을 높였다. 한복체험 행사와 다양한 사랑의 미션(오작교업고건너기, 사랑의 연꽃과 소망나무, 사랑의 프리포즈), 지붕 없는 미술관 등 개별 아이템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춘향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춘향길놀이'는 국악고와 협약을 맺어 판소리 춘향전을 재구성한 춤과 퍼포먼스 등을 구현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형 퍼레이드카로 관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관람객과 길놀이 행렬이 함께 술과 떡을 나눠 먹고 어우러져 춤을 추며 신나는 대동 어울림 한마당을 더욱 풍성하게 연출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눈여겨 볼 만 한 프로그램으로



예술공연

원일 평창올림픽 음악감독 선임 등 공연예술 전문가 예술감독으로 영입

가장 '핫'한 '이판사판춤', 객석 규모 확대 춤판 무대 장식 등 올해도 더욱 집중 강화키로

'춘향길놀이', 국악고와 협약 맺어 판소리 춘향전 재구성한 춤·퍼포먼스 선보



춘향길놀이

는 2017 춘향제 청소년 아이템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작인 '교복페스티벌'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춘향제를 만들고자 기획하였다. 교복리폼, 패션쇼 및 체험 이벤트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효과적인 행사장 공간 구성

축제 공간 변화로 광한투원에는 대표공연예술제, 춘향선발대회, 춘향시대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집중·배치하고, 완월정 누각 및 주변 거목을 배경으로 극장식 예술무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광한투원 실경을 배경으로 야간 경관 조명을 확대해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요천 주변 경관시설은 꽃단지, 샅다리, 사랑의 포도존 등 조형물의 완성도를 강화하여 공연예술과 사랑을 조화시킨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행사장 곳곳에 쉼터를 마련하여 춘향제 행사를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축제 당일 풍물장터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읍면동 만남의 장터는 참여 읍면동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지역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교통 혼란·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고 도로변 임시주차 표시와 사전홍보를 강화해 외부차량을 주차구역으로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춘향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뛰어 넘어 세계적인 전통공연예술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랑과 감동을 느끼는 축제가 되도록 시민회합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원한국)

홍보대사 류수영